

東亞日報

發行·編輯 金炳瑄
 印刷 李塚柱
 編輯局長 李顯樂
 서울市鐘路區世宗路139
 (郵便番號 110-715)
 電話 案內(02)361-0114
 編輯 局(02)361-0271
 361-0281
 F A Y. (02)361-0434
 361-0423
 廣告 局(02)361-0777
 出版 局(02)721-7114
 東亞文化센터(02)781-0833
 구독신청 (02)361-0888·0898
 배달안내 080-023-0555-6
 購讀料 月定 7,000원
 1部 300원
 本報는 新聞倫理綱領 및 그 實踐要綱을 遵守한다.
 © 東亞日報社 1995
 世界權威提携社
 뉴욕 타임스 (美國)
 더 타임스 (英國)
 朝日新聞 (日本)
 이즈베스티아 (러시아)
 人民日報 (中國)

'96학년도학자금

정치인·司正 내달중순 착수

檢察고위관계자 수뢰의원 10여명 대상

與野 중진급 다수 포

“돈줬다” 재벌총수 기

대한민국 검찰총장인 박영우 수사부장은 내달 1월 중순경에 검찰청에서 수사에 착수할 방침이다. 박 총장은 검찰청에서 근무하는 동안 검찰청의 개혁을 추진해 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움직임은 검찰청 내부에서 이미 알려졌었다. 검찰고위관계자는 29일 『5·18사건 재수사가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검찰청 수사부사를 시작할 경우 검찰청의 개혁을 추진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또 『내달 1월 중순경 5·18사건 재수사를 마무리



韓·美軍

韓?

北도발대비 2월 사상 첫 실시
 한반도의 사상 처음으로 북한군의 사상 첫 실시이다. 주한미군의 한 고위 관계자는 『북한군은 2월 10일 100여 명의 병력을 남한에 투입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南山 舊안기부 첫 공개
 군사정권시 공표의 미 이회 안기의 복원 및 남산 안기부청사가 29 보너스에 처해 공개됐다. 조사결과 불어난 1억 2천만 원이 남산 안기부청사의 복원이 남아 있는 듯하다. <37면에 광림기사·차철편>

古下 宋鎮禹선생 추념가면 유지 (13면)

東亞 마라톤꿈나무財團 설립

산실

49億재원 확보

유망주

양성사업 적



古下 宋鎮禹선생 50주기 추념식에서 분향하는 각 계 참석인사들。

일본정부기 내년 1월말
일방적으로 2백해리 E E
Z를 선포키로 방침을 정
한데 따른 것으로 일본 및

센다이총영사 金成珪 씨
정부는 29일 주(駐)에과

古下 宋鎮禹선생 50周忌

어제 本社강당서 추념식·강연회

古下 宋鎮禹선생 50주기 추념식 및 추념강연회가 29일 오전 동아일보 총정로서 옥 18층 강당에서 열렸다.

아 민족을 이끌었다"고 추모했다.

동아일보와 宋鎮禹선생 기념사업회 공동주최로 열린 이날 행사에서 權彝赫 기념사업회 이사장인 『古下선생』 암담한 일제의 강점기간중 仁村 金性洙선생과 근계 소을 잡고 동아 일보를 민족연방과 국내 독립전쟁의 종본산으로 삼

자유민주주의의 기틀을 세운 선생의 유지를 받들어 통일된 선진복지국가 건설에 앞장서자"고 말했다.

추념식에 이어 沈之淵경 남대교수와 金學俊단국대 이사장은 일제하 및 해방정국에서의 古下 사상과 노선에 대해 강연했다.

다(△시각보도 金相澤경향신문화백(경향만평)이

〈31명의 강연자〉

이날 행사에는 유족대표인 宋相現서울대교수를 비롯해 蔡汝植전국회의장(고려중앙의원 이사장) 黃寅性전국무총리 金相鴻삼양그룹회장 奇世勳이준기념회 이사장 金勝坤광복회장 李康勳전광복회장 金桂洙광복50주년기념사업위원장 金炳瑄동아일보회장 洪一植고려대총장 姜仁燮신한국당의원 金雲泰서울대명예교수 金容駿고려대명예교수 시인 具常씨 李庚植 LG전자커뮤니카토회아연 구소장 등 3백여명이 참석했다.

古下 宋鎮禹선생 50주기 추념강연 (요지)

古下 宋鎮禹선생(1890~1945)의 50주기 추념강연회에서 발표된 沈之淵경남대학교수의 「일제하 古下의 사상과 노선」과 金學俊단국대이사장의 「해방정국에서의 古下의 사상과 노선」을 각각 요약해 소개한다. <편집자>

사상개혁-실력양성 주력

물산장려-민립대학설립운동등 전개

일제시대 사상-노선

일제시대 古下 宋鎮禹가 역점을 두고 주장했던 것은 사상개혁론과 실력양성론이었다. 이는 교육계와 언론계에 종사할 때 강조하고 실천했던 것으로 그는 사상의 개혁을 통해 봉건적인 제반 질곡에서 벗어나 사회의 발전을 도모하려 했고 실력을 양성하여 민족의 독립을 이루려고 했다.

사상개혁론에서 古下가 주장한 것은 낡은 사상의 타파와 새로운 사상의 도입이었다. 새로운 시대는 새로운 생활을 요구하고, 새로운 생활은 새로운 사상에서 배태되므로, 새로운 사상을 가져야 한다고 역설한 것이다.

그러하여 유교의 형식성 극복과 국수주의의 발취, 대가족제도의 타파와 개인의 자립, 강제 연애의 타파와 자유 연애의 고취, 허영교육의 타파와 실리교육의 실시, 상식의 타파와 과학의 진흥 등 다섯 가지의 낡은 사상을 타파하고 그대신 새로운 것 다섯 가지의 도입을 주장했다.

古下는 이들 분야에서 종래의 낡은 사상이 개혁되지 않는 한, 사회에는 남에게 의존하려는 풍조가 만연하게 되며 민족은 자립의 길을

구하지 않게 되고 결국은 투기에만 몰두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상이 개혁된다면 식민지상태로부터 벗어나 자주 독립된 국가를 만들 수 있다고 보았기에 이같이 역설한 것이다.

이와 아울러 古下는 민족적 자유를 쟁취하고 사회적 생존권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외부의 원조보다 중심세력의 확립 즉, 자체의 세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것이 실력양성론의 본질로

그는 민족의 독립은 자체의 힘이 있어야만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이러한 힘은 민족 자체의 단합이 확립되는 날 해결될 것이라고 보고 민족의 단결을 강조했다. 이처럼 실력양성의 필요성을 역설한 그는 이를 위한 방편의 하나로 물산장려운동, 민립대학 설립운동 등 각종 사업을 전개했다.

일제가 민족운동을 말살하기 위한 조치로 치안유지법을 공포하자 古下는 실력양성론에 입각하여 외



沈 之 淵

<경남대학교수·정치학>

부의 선전보다 내부의 조직을 견고하고 착실하게 하여 실질적인 세력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이러한 자세야말로 인류사회의 대행진에서 역사적 사명을 충실히 하는 것이며 영원한 기념탑을 쌓는 것이라고 주장하고 분열하면 아무리 사상이 훌륭하다 할지라도 실패로 돌아가고 말 것이라고 경고했다. 古下가 사상개혁과 실력양성론을 보급하는 기관으로 활용하던 동아일보가 폐간되자 그는 동아일보 사옥을 반일정신의 상징처럼 유지하면서 일제 말기를 보냈다. 비록 직접적인 항일에 나설 수는 없었지만 암울한 시대에 그로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는 비협조의 태도를 견지한 것이다.

일제시대 사상개혁과 실력양성을 주장했던 그는 이를 통해 사회의 발전과 민족의 독립을 도모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지조를 굽히지 않고 민족적 양심을 지키면서 독립이 될 그날을 기다렸던 것이다.



金炳瑄동아일보회장(앞줄 오른쪽에서 세번째)과 蔡汶植 전국회의장(앞줄 맨 오른쪽)등 참석인사들이 추념강연을 듣고 있다. <金東柱>

임정奉戴-人共타도 앞장

美軍政과 제휴 민주정부수립 노력

해방후 사상-노선

古下 宋鎮禹가 해방공간에서 활동한 시기는 1백37일에 지나지 않는다. 그러나 4개월 반 정도의 짧은 기간에 그가 제시한 노선은 결국 대한민국 건국 노선으로 귀결됐기에 오늘날에도 중요하게 재음미되고 있다.

패망을 앞둔 일제가 조선에 사는 일본 사람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받는 대가로 민족지도자 古下에게 치안권과 행정권의 일부를 넘겨 주겠다고 했으나 古下가 거부했다는 사실은 이미 널리 알려져 있다. 이때 古下는 권력을 일제로부터 받으면 괴뢰가 되는만큼 연합국으로부터 받아야 하며, 받는 주체는 어디까지나 대한민국 임시정부여야 하고, 따라서 국내 세력은 임정(臨政)을 떠받들어야 한다는 노선을

제시했다. 이것이 古下의 「임정봉대론」이다.

古下의 이 노선은 夢陽 呂運亨의 노선과 상충하는 것이었다. 夢陽은 자신이 제시한 5개 요구조건이 충족되자 조선총독부로부터 치안권과 행정권의 일부를 넘겨받아 조선건국준비위원회를 세웠고, 곧이어 조선공산당의 강력한 영향아래 이 건준(建準)을 조선인민공화국으로 변모시켰기 때문이었다. 그래서 古下는 임정봉대론에 입각해 인공타도론을 제시하게 됐다.

古下는 자신의 노선을 행동으로 옮기기 위해 한국민주당을 창당했다. 그는 곧 연합국과 협력해 독립정부 수립을 준비한다는 취지에서 남한에 세워진 미군정과의 제휴를 모색했다. 여기에서 한민당 미군정공조체제가 성립되어 해방 3년을 주도하게 됐다.

그렇다고 해서 古下가 임정봉대

론에서 벗어난 것은 결코 아니었다. 그는 「대한민국임시정부 환국환영회」와 「환국지사 후원회」등을 출범시켜 임정이 빠른 시일안에 돌아와 건국준비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도왔다.

그는 특히 임정의 초대 대통령인 李承晩과 임정의 주석인 金九의 협력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두 지도자 사이의 경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게 됐고, 이 과정에서 古下와 한민당은 李承晩쪽으로 기울어지게 됐다.

45년 12월 27일, 「한반도문제에 관한 모스크바 3상회의 결정」이 「한민족에 대한 연합국의 신탁통치합의」에 무게가 실린 채 국내에 알려지면서 해방정국은 새로운 국면을 맞았다. 金九의 한국독립당을 비롯한 임정 세력은 곧바로 전국적인 반탁을 부르짖고 민중동원에 나



金 學 俊

〈단국대이사장·정치학〉

섰다.

古下 역시 반탁의 뜻을 분명하게 밝혔다. 그러나 연합국의 정책의도를 경시할 수 없다고 판단한 그는 「과격함 방법」을 회피하면서 민중의 반탁의지를 드러내는 길을 찾고 주장했다. 이것이 찬탁으로 오해되어 암살되고 말았다.

그가 암살된 뒤 한민당은 李承晩을 도와 대한민국 건국의 기관차 역할을 했다. 대한민국이 세워진 뒤 한민당은 민국당과 민주당으로 바뀐채 야당이 되어 자유민주주의 수호에 크게 이바지했다.